

의안번호	제 218 호
의 결 년 월 일	1999년 11월 24일 (제 168 회)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를 위한 건의문(안)

제 안 자	관광건설위원장
제안년월일	1999년 11월 24일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를 위한 건의문(안)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국무조정실장님, 기획예산처장관님, 재정경제부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님

IMF사태를 맞아 빈사상태에 빠졌던 국가경제를 회생시키고 또한 21세기의 국제사회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국정에 노심초사 하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님과 관계장관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1년 10여개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낡은 관행과 행태들로 얼룩진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 둘 정화되어가고 국민 편에 다가서는 모습을 볼 때 매우 흐뭇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충북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우리 충북지역에 유치해 주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3일 광주학생의거 기념일에 참석하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2004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준공하시겠다는 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을 쌍수로 환영하지만 건설내용중 천안~익산간 철도노선은 결코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충북권, 대전권, 강원도, 중부권 300만 교통인구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이에 300만 교통인구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건설의 타당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선을 활용하여 강원권과 연계함으로써 X자형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청주 오송역은 충북선(전철화 추진중)을 통하여 태백선 및 영동선과 연계되어 호남권과 강원권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뿐만 아니라 호남권에서 대구·경북권과의 연계측면 에서도 매우 유리한 입지입니다 그러나 천안기점역인 경우 장항선과 연계 가능하나 장항선이 천안에서 서남측을 잇는 노선대 이므로 호남고속철도와의 연계는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둘째, 오송기점역 대안이면 건설비용이 3,350억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송역에서 논산까지의 노선길이 약54Km, 천안에서 논산까지의 노선길이는 68Km로서 오송기점역이 약 14Km 짧으며 위의 건설비용은 오송기점역 대안이 약 1조2,895억원(1996년 기준), 천안기점역 대안이 약 1조 6,245억원으로 오송기점역의 건설비용이 3,350억원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F 시대인 만큼 철도건설 비용의 최소화는 국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오송기점역의 고속철도 승객수요는 천안기점역의 5배나 됩니다.

오송역을 기점으로 대전외곽을 경유하는 건설대안의 잠재 이용인구(2021년기준)는 385만명으로 천안기점역으로 공주를 경유하는 대안의 잠재 이용인구 18만명의 약16배 해당되며 고급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지역간 1일 총 발생량(2021년 기준) 관점에서 볼 때 오송기점역은 1일 41만5천명으로 천안기점역 1만9천명의 약 21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철도이용 승객의 증가로 인한 수입의 극대화도 적자를 해소하는 매우 합리적인 고속철도 운영이 될 것입니다.

넷째, 고속철도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이
룩 해야만 합니다.

대전·청주권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전국 7대
광역권중의 하나이며 이 지역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청주 국제공항, 중부권 복합
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충북선의 전철화,
경부고속철도 궤도기지창 등 수없이 많이 있고 또한
행정, 군사, 관광의 요충지로서 정부 제3청사, 공군사관
학교, 육·해·공군본부, 대덕연구단지, 국립묘지,
EXPO 과학공원 등이 있으며 속리산, 계룡산, 월악산,
소백산국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므로
관광객의 유치에도 매우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
다.

아울러 오송기점역의 오송역세권은 이미 신도시 개
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공주(반포)역세권의 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 충남·대전 모두 그 혜택을
공유,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투자비의 일부 부담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모두의 자긍심이자 세계적 문화재인 백제문화권
보존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가 백제의 문화유적이 산재하고 있는

공주와 부여지역을 통과할 경우 경주와 같은 개발과 보전의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송역 인근에는 개발여건이 양호한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광활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이 지역을 30만 규모의 신도시로 개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지역보다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오송지역을 연계한다면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균형발전, 문화재의 원형보존으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조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경제적인면, 이용면, 장래성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구비한 오송기점역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배려가 있으시길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50만 도민의 강력한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1999. 11. 24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